

해외 건축정책 동향

노르웨이 건축정책(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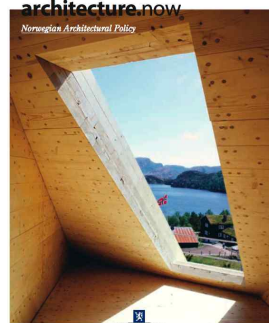
김영현(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노르웨이는 1992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조환경의 문화적 측면: 공공환경 심미성 관련 실행 프로그램(Surroundings as Culture: Action Programme for Aesthetics in Public Environment)」을 시작으로 1997년 제2차 건축정책 「공공건축 및 건설사업의 심미성(Aesthetics in Government Building and Constructions)」, 2009년도에 제3차 기본계획(Architecture, now Norwegian Architectural Policy)을 수립·발표하였다.

노르웨이 건축정책은 건축분야의 주요쟁점사항으로 ①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②사회적 변화, ③지식과 혁신 등 3개 사안으로 정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6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과제, 노르웨이 건축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타 유럽국가와 비교되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건축정책 서두에 '건축의 정의'에 대해 일반적 의미, 학문적 의미, 산업적 의미 등 건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각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가장 다양하고 많은 중앙부처가 건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노르웨이 건축정책의 6개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과제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정책내용 구성

노르웨이 건축정책에서는 건축에 대한 주요쟁점으로 ①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관련(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②사회적 변화(change and transformation), ③지식과 혁신 관련(knowledge and innovation) 사안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6개 정책방향으로 1)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물 조성, 2)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도시 및 인구집중센터 개발, 3)문화적 환경 및 건축유산 보존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4)건축에 대한 첨단지식 보급, 5)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6)건축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 건축정책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 및 역할

여성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행정부(Ministry of Renewal and Administration),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지방정부·지역개발부(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문화종교부(Ministry of Culture and Church Affairs),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농림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석유에너지부(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교통·커뮤니케이션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등 13개의 부처가 건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각 부처별 건축정책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코디네이팅을 담당하는 부처로써 유니버설 디자인 및 시설 접근성 제고에 대한 건축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2) 행정부는 정부소유의 행정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로써 공공 건설사업 및 부동산 관리기관인 "Statsbygg"를 중심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빌딩 커미셔너, 시설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국방부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면적의 공공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부처로써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방호시설에 대해 문화유산으로서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방시설관리위원회(Norwegian Defence Estates, FB)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전담하는 전문조직으로 국방시설에 대한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보건복지부는 건축과 건강, 웰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정책으로써 최근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의 보급·관리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5) 지방정부·지역개발부는 주택 및 건설정책을 주관하고, 관련 지원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써 건축설계, 친환경 자재 이용, 에너지 효율성, 커뮤니티 디자인 등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6) 문화종교부는 문화 및 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로써 노르웨이 건축센터인 Norsk Form과 국가 예술건축디자인박물관(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을 관리하고 있다.

7) 교육부는 산하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오슬로 건축디자인 학교,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베르겐 건축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8) 농림식품부는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농촌시설에 대한 신축, 지형에 대한 공간분석, 유휴농촌시설에 대한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 환경부는 정부의 환경정책 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유산 사이트의 보존 및 이용, 수질 좋은 해수 보존 및 독신 억제, 안정적 기후 및 청량한 산소 확보, 생태계 다양성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0) 통상산업부는 국제전시 사무국 BIE멤버십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노르웨이 건축산업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 산하에 지난 10년간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적 프로파일링 제고를 위해 기여한 노르웨이 디자인위원회(Norwegian Design Council)를 담당하고 있다.

11) 석유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코디네이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관련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공기업 에노바(Enova)를 담당하고 있다.

12) 교통커뮤니케이션부는 항공, 도로, 철도 등 네트워크 분야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평가,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및 예산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외교부는 국제적인 문화협력사업과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화, 관광산업의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건축을 전시, 프리젠테이션, 세미나 등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인터넷 포털 'norgesportalen' 을 관리하고 있다.

건축정책 6대 추진전략별 주요내용

①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

-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소비 감소,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한 물질 생산 억제,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택 및 건설부문의 환경실행계획 수립(New enviironmental action plan for the housing and building sector 2009)
- 건축물 에너지 성능요구 기준 강화 및 건축물 전생애주기 환경 평가
- 패시브 하우스 건축기준 개발 및 보급 확대
- 저에너지 프로그램 도입으로 빌딩 및 인프라시설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 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 확대 : 농산업의 바이오에너지 이용과 우드칩 활용, 빌딩 구조에 맞춤형으로 건축되는 소규모 바이오 원료 플랜트에 대한 투지 지원 등

- 에노바(Enova) 운영: 주택, 빌딩,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신축 주거와 상업시설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정부 계획에 따라 에노바는 약 650동의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지원
-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역난방시스템 설치, 빌딩 난방 시스템의 바이오 에너지 온수시스템으로의 전환프로그램 마련
- 에너지절감에 대한 혁신적인 신기술 보급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미래의 도시(Towns of the future)' 사업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환경부 주관의 녹색도시 시범사업
- 13개 대규모 도시지역으로 오슬로, Baerum, 드람멘(Drammen), 사릅스보르그(Sarpsborg), 프레드릭스타(Fredrikstad), 포르스그룬(Porsgrunn), 시엔(Skien), 크리스티안산(Kristiansand), 산네스(Sandnes), 스타방에르(Stavanger), 베르겐(Bergen), 트론헤임(Trondheim), 트롬쇠(Tromso) 등에 적용
- 탄소중립 시범도시로서 관련 우수사례인 오슬로-드람멘 도시 및 주택전시 시행

-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축 프로그램 :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난방 시스템 도입, 건축물별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준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 친환경 및 재생가능 소재로서 목재사용 증대

- Statsbygg 주관하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 현재 건축물 계획, 시공 및 운영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웹 툴 개발

- 빌딩에너지 라벨링 제도 운영

-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택과 상업시설의 매매 및 임대 시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 지원
- 1,000㎡이상의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되며, 매매 또는 임차대상인 소규모 시설 및 주택에도 적용

- 에너지 라벨링과 더불어 에너지, 환기시스템, 보일러에 대한 정기적인 에너지 평가 도입 예정
-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적 자료 제공 : 기후변화 정보를 시각화하고, 위기지역 맵핑,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 관리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평가 등 수행

② 우수한 건축품질 확보를 위한 도시 및 인구집중센터 개발

- 지자체 건축인력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조직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공공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유관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이 지자체 지원을 위한 중앙 자문서비스 개발
- 사회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친환경적 교통체계 강화
 - 대중교통 이용 증대 전략과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독려 전략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정립을 위해 개별 운전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교통 측면에서의 효율적 토지이용 정책 마련
- 자연지형의 환경적 요소 보존
 - 무분별한 별장 신축으로 인한 환경적 가치 훼손 및 에너지 소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지역에 임대 가능한 캐빈, 숙박시설 제공
- 건축 및 건설, 환경 디자인 관련 지식 강화
 - 건축 전반에 대한 지식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건설, 환경디자인 교육과정, 인터넷 교육 과정에 대한 웹포털 개발
- 어린이 공간이용 패턴 파악 및 관련 시설 개발시 적용
 - 노르웨이 건축센터 Norsk Form 주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공간 이용현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맵핑 툴을 개발하고, 이를 계획과정에 활용
-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노인계층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건축승인 과정의 전산화 시스템 도입

- 국가 빌딩기술행정기관(National Office of Building Technology Administration, BE)에서 운영하는 ‘Byggsok’은 건축승인 과정의 준비, 제출, 관리를 전산화한 시스템
- ‘Byggsok-plan’은 민간 건축허가승인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제공하며 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Byggsok-plan’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가능
- 문화유산 검색 웹사이트 운영
 - 노르웨이 문화유산국의 데이터베이스이자 문화유산법(Cultural Heritage Act)에 의해 보존되는 모든 문화적 유산의 데이터베이스인 ‘Askeladden’의 정보 이용
- 역사적 도심부의 보존
 - 2009년 정부는 노르웨이 문화유산국을 통해 75개 도시 및 소도시의 국가 문화 유산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National Interests in Towns(NIB)’ 데이터베이스¹⁾ 운영 시작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률 강화
 - 일반 대중을 위한 신축 건물, 인프라, 공개공간, 특히 관람객이 방문하는 공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규제 마련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가이드 및 보고서 발간배포
 - 8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역차원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

③ 문화적 환경 및 건축유산 보존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 공공시설 유형별 국가 차원의 보존시설 계획 수립(national conservation plan)
 - 문화유산법(Cultural Heritage Act)에 따라 문화재 지정 및 보존 건물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1000동 이상의 건물에 대한 실질적 보존 업무 수행
 - 공공자산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획이며, 16개 중앙부처 및 12개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추진

1) 문화유산 관리 행정조직,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이 행정 목적, 토지이용계획, 건축허가 승인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예측 가능한 계획과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새로운 계획 및 건축법률 준수가 용이하도록 지원

-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군사요충지 활용
 - 국방부는 14개 국가 요새를 포함하여 다수의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구조물로서의 특성을 보존
 - 일레로 콩스빙에르 군사시설(Kongsvinger Fortress)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한 우수 시범사례
- 노르웨이 석유, 에너지, 수자원 역사 강조
 - 노르웨이 석유 박물관(Norwegian Petroleum Museum)은 노르웨이에서 석유가 발견된 1960년대 중반 시점부터 석유 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대한 역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필드에 대한 기록화 작업과 석유산업 관련 문화적 유산 계획 수립
 - 엘베름(Elverum)에 위치한 노르웨이 삼림 박물관(Norwegian Forest Museum)과 보존시설로 등록된 발전소인 뤼소 1호(Tysso 1)에 위치한 노르웨이 수력발전소 박물관(Norwegian Museum of Hydropower and Industry)과 협력하여 새로운 박물관 건립 추진
- 농림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와 환경부 주관으로 다양한 20개 문화적 지형을 선정하여 기록화하고 구체적인 보존 사업 추진

④ 건축에 대한 첨단기술 보급으로 건축디자인 수준 향상

- 건축분야 지식체계 현황조사 및 연구 추진
 - 주요 연구주제로는 노르웨이 물리적 환경 변화 속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예술작-문화적 표현매체로서의 건축, 건축물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공공의 역할, 건축과 건설산업의 혁신 등이다.
 - 오슬로 건축디자인학교(Oslo School of Architecture and Design, AHO),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TNU) 주관으로 건축분야 연구 프로그램 진행
- 8개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를 지정하여 건축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
- 친환경적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학제 연구센터 설립
 - 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UMB) 주관으로 다양한 전문분야 및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연구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팅, 정보보급 등의 역할 담당

- 건축이론 및 역사 연구센터(Centre for Architectural Theory and History, CATH) 개발
- 실무에 기반한 첨단 설계기법 연구 추진
 - 기술적, 산업적,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건축 전문분야와 건설산업의 발전에 위한 새로운 첨단기술 및 전략에 대한 연구 진행
- 대학기관 간 협력 강화
 - 건축을 문화적 산물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수단으로써 접근하는 연구 필요성을 기반으로 건축품질에 관한 환경, 에너지, 유니버설 디자인, 실무, 지역개발에 대한 주제로 대학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국가차원의 건축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 센터 Housing Bank
 - 지자체, 공공조직, 건설산업 간 관계 형성에 중심적 역할 담당하고, 정보교류를 위한 건축관련 웹사이트, 컨퍼런스, 워크숍, 이벤트 등 운영
- 노르웨이 건축센터 Norsk Form의 지속적 발전
- 오슬로 트리엔날레(Oslo Triennale)
 - 3년주기로 가을에 전문가와 일반대중을 위한 전시, 컨퍼런스, 기타 공공이벤트를 운영하여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정보 축적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 현재까지 오슬로 건축 트리엔날레는 3차례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오슬로 건축디자인 학교(AHO), 노르웨이 건축가협회(Norwegian Architects Association, NAL), 오슬로 건축가협회(Oslo Architects Association), Oslo Teknopol, Norsk Form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 노르웨이 예술건축디자인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축 도면 컬렉션(350,000장 이상)과 모형, 노르웨이 건축 발전과 관련한 기타 기록물을 소장
 - 2008년 노르웨이 예술건축디자인 박물관은 오슬로 Bankplassen에 건축을 위한 새로운 전시공간을 개관하였으며, Sverre Fehn에 의해 설계된 새로운 전시 파빌리온은 1830년 건립된 Norges Bank 빌딩(건축가: C.H. Grosch)을 개조한 것임
- 노르웨이 도로관리 기관(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ion)의 ‘국가 관광 루트(National Tourist

Routes)’ 사업을 통한 신진건축가 발굴육성

- 유로판 노르웨이(Europen Norway)

- 유로판은 유럽의 40세 미만 젊은 건축가, 조경 건축가, 계획가들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며, 2년마다 개최되고 유럽의 60개 이상 도시가 참여

- 유로판 노르웨이 재단은 노르웨이 유로판 공모 운영 주체이며, 이사회에는 오슬로 건축학교(Oslo School of Architecture),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베르겐 건축학교(Bergen School of Architecture), 노르웨이 건축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Norwegian Architects), Norsk Form, Housing Bank 모두 포함

- 와일드 카드 제도(Collaboration between young and experienced architects – the wild card scheme)

- 젊은 건축가들의 시장 접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초청에 의한 공모전은 과거 경력 또는 경험에 의한 사전심사(prequalification)를 통과해야하기 때문

- 최초 덴마크에서부터 와일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도입 예정

덴마크 와일드 카드 제도(The Wild Card scheme in Denmark)

- 덴마크 건축센터(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는 덴마크 건축가협회(Architects' Association of Denmark, AA), Danish Competition Authority와 협력하여 와일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젊은 건축가들의 건축 공모전 참여 독려

- 젊은 건축가들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발주자의 경제적 손실 우려에 의한 젊은 건축가 고용 회피 상황을 개선하고 있으며, 발주자에게도 신진 건축가에 대한 정보 전달의 역할 수행

- 와일드 카드 제도의 4부분

- 와일드 카드 리스트는 젊은, 신진 건축가 사무실에 대한 개요 제공

- 젊은 건축가에 의해 수행된 성공 사례 10개 소개

- 발주자들이 신진 건축가를 공모전에 초청할 수 있도록 덴마크 건축가협회에서 가이드 제공

- 덴마크 건축센터와 덴마크 건축가협회가 주관하여 젊은 건축가, 소비자, 파트너들을 소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제공

- 이러한 와일드 카드 제도는 2009년에 평가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www.dac.dk/wildcardordning에서 열람 가능

⑤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정부 주관 공공건축 공모전 운영

- 정부는 국가에서 가장 큰 발주자로서 수준 높은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 수행

- 1999년에 제정된 공공발주법률(Public Procurement Act No. 69 of 16th July 1999)은 모든 공공발주 사업이 공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을 규정

- 대부분의 건축 공모전은 Statsbygg(공공 건설사업 및 부동산 관리기관, Directorate of Public Construction and Property)에 의해 운영

- 공모전의 형태는 계획공모, 설계공모 또는 초청에 의한 공모로 구분되며, 공모 형태에 대한 결정은 개별 사업의 특성,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과업 범위 등의 통합적인 고려를 통해 결정

- 공공부문은 친환경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선도해야 하며, 모든 소비 및 생산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 마련

- 정부 실행계획인 「2007-2010년 공공발주 사업의 환경적 및 사회적 책무(The environ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ublic procurements(2007-2010))」는 공공조직의 자재 구매 등에 있어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성 사안이 최우선순위로 고려

- 공공공간 및 건축물을 위한 예술 정책이 존재하며, 정책 내용은 노르웨이 공공예술 관련 기관인 KORO(Public Art Norway, KORO)에 의해 추진

- 노르웨이 군사시설위원회(The armed forces' architecture council)

- 모든 군사시설의 기획, 건설사업 프로그램 및 계획 등 건축품질 확보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전문성 및 경험이 인정되는 3인의 건축가로 구성

- 국가적 관광 루트 개발(National tourist routes)

- 노르웨이 도로행정기관(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tion)은 현재 국가 관광 루트(National Tourist Routes)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의 핵심은 도로와 주변 경관 간의 관계 설정

- 운전자 입장에서 뷰포인트 설정, 휴게지점에서의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 등 노르웨이의 관광지 개발

- 비도시 지역 관광전략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18개 루트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마케팅 중

-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인프라 시설의 품질 확보
 -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은 다수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간 협조를 필요로 하며, 자연 및 건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시설의 품질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 BIM(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활용 확대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의 업무절차 및 소통 간소화

⑥ 건축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노르웨이 예술 및 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해 노르웨이 건축 프로파일링을 우선순위 과제로 설정
- 문화 관련 또는 노르웨이를 홍보하는 정보의 확산 측면에서 외교서비스를 통한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우수건축을 전시함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관광지로서의 노르웨이 홍보 병행
- 인터넷 기반 정보 보급 시스템의 강화
 - 건축센터 Norsk Form은 웹사이트의 다양한 언어 지원을 통해 인터넷 기반 정보 보급을 강화하고, 매달 영문으로 제작된 노르웨이 디자인 및 건축 관련 소식지를 국제 미디어, 전문가 등에게 보급
 - 도시 설계, 건축, 빌딩 및 환경 디자인 관련 수상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노르웨이 건축을 홍보
 - 19개 언어로 지원되는 외교 서비스의 인터넷 포털인 'Norgesportalen' 은 기타 전문적인 정보 채널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될 예정이며 언어도 23개로 확대하여 운영 예정